지역사회 · 만든 방법

베이글 가게 도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

사람이 정하고 고르는 일, AI가 정리하고 만드는 일, 앱이 매일 해 주는 일을 나눴습니다.

제가 하는 일

1. 사장님·직원에게 필요한 것 묻기
2. 메뉴·가격·영업시간·레시피 모아 정리
3. Claude와 안내 문구·사용법 다듬기
4. 매장에서 써 보고 불편한 점 모으기
5. QR·포스터 붙이기

AI가 하는 일

1. **Claude** — 메뉴·가격 정리, 손님 안내 문구, 직원용 사용법, 이벤트 문구
2. **Claude Code** — 가족이 정한 대로 직원 앱·손님 메뉴판·포스터를 만들고 고침

앱이 하는 일

1. 메뉴별 레시피 보여 주기
2. 오픈 준비 체크리스트
3. 재고 충분·보통·부족 → 발주 목록
4. 날짜별 발주 기록·메모
5. QR 메뉴판(메뉴·와이파이·리뷰 이벤트)

써 보며 고친 것

발주를 취소할 수 있게 · 같은 품목이 두 번 발주되지 않게 · 메모에 새 글 표시 · 손님 메뉴판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복사 · 리뷰 이벤트를 따로 한 장으로

지키는 것

· 레시피 일부(샐러드·재료 손질)는 사장님만 보도록 나눴고, 이 자료에도 넣지 않았습니다.
· 재고·발주 화면은 PIN으로 잠갔습니다.
·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자료에서 가렸고, 가게 이름·사진은 사장님 허락을 받았습니다.

도구	하는 일	누가 씀
Claude	메뉴·안내 문구·사용법 정리	사모님
Claude Code	앱·메뉴판·포스터 만들기	가족
웹 앱(휴대폰)	레시피·재고·발주·메모	직원
QR 메뉴판	메뉴·와이파이·리뷰	손님